

# 청라 심곡천 유류 유출... 재발 방지 시급

### 김원진 인천 서구의회 의원 행정감사서 적극행정 요구

인천 서구의회 김원진(민주당, 가 선 거구) 의원은 지난 24일 실시된 환경관리과·생태하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업무처리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지난 24일 진행된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2040 서구 환경계획 수립 용역의 도출된 결과의 제안과 본 의원이 지난 자유발언에서 언급한 조직개편안의 기후에너지정책과 폐지와 관련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같다면 현재 기후변화 대응 TF다 구성된 것으로 알고있다고 시너지를 잘 이뤄 사업이 잘 진행되길 바라며 향후에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부서나 팀을 구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녹색탄소 기본계획 수립과 환경계획조직개편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청라 심곡천의 유류 유출 사고를 언급하며 지난 5년간 지역 내 유류 유출로 수질과 하천이 오염되는 사례에 대해 자료요청을 받은 결과 사고의 절반은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심곡천의 유류 유출사고는 지난 6일에 신고가 접수돼 7일 현장방문, 8일 방



인천 서구의회 김원진 의원은 지난 24일 실시된 환경관리과·생태하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업무처리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사진=인천 서구의회)

제작업을 본격적으로 해 다음달 초까지 진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빠른 초기대응을 해준 해당과에 감사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사고에 있어서 원인규명만큼은 정확하게 돼야 할 것이며 서구청과 담당관리주체인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공개해 주길 바라며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곳의 유류유출사고는 원인 파악이 가능하나 주변에 사업장이 없는 장소의

유류유출에 대해서는 기술력의 부족한 점이 있다며, 하수팀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금오동 마을 악취, 오염물질 배출 등 관련 민원 진행 상황 △검단산단 아스콘공장 대기오염 개선사업 결과 보고 △시공업체 선정 과정 및 업체의 검증 과정 등 사후관리

내역 △시공 후 성능검사가 사업 기간 내에 실시해야함에 따른 성능검사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방법을 실시했는지에 대해 꼼꼼하게 질의하며 서구가 환경적으로 이슈가 많은 만큼 사업이 마무리가 잘 돼 하나의 성공사례로 남

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집행부에서는 환경 행정을 할 때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우선의 목적으로 삼아 전국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날 실시된 생태하천과 질의시간에는 심곡천 중하류 주변지역에서 지속적인 악취와 수질오염 민원이 발생해 오염측정지표로 BOD, TOC를 측정하고 있으나 지표에 대한 의미있는 분석작업이 결여돼 있어, 오염과 악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곡천 중하류 지역인 청라 지역은 LH가 관할하고 있어 서구청과 LH가 연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충분한 협의의 채널이 구축되지 않았고 각종 측정 자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자료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문서로 관리해 관련 내용을 바르게 분석해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의 예산 대비 중요성이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상황 이므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서라도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안중삼 기자

## 의회 단신

### 내년도 예산안·의원발의 조례 등 심의

#### 인천 계양구의회, 정례회 개최

인천 계양구의회가 다음달 20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제246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 및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등이 처리된다.

상정 안건으로 '인천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인천시 계양구의회 모범공무원 규정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3건, '인천시 계양구 공공 체육

시설 민간위탁운영 재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을 보면 2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8일 조례안 등 심사, 29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다음달 1일 안건처리, 4일부터 14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뒤 다음달 20일 제3차 본회의의 안건처리를 통해 제2차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된다.

송충일 기자

### 정례회기 중 구 21개 동 행정감사 나서

#### 인천 미추홀구의회

인천 미추홀구의회가 제277회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된 2023년 미추홀구 21개 동 행정사무감사(행감)를 지난 24·27일 이틀간 실시했다.

미추홀구의회 의원 14명이 총 4개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의 예산 대비 중요성이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상황 이므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서라도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마지막으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의 예산 대비 중요성이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상황 이므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서라도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또한 앞으로 구민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전체 동에 일반적으로 지적된 사항들이 있었는데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고가의 웨어러블 캠 장비를 구입했는데 실제 업무 장소에서는 착용을 하지 않은 채 업무를 보고 있다"며 "착용에 불편한 부분이 있었지만 구 예산을 투입해 구입한 장비인 만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유동수 기자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23~24일 의원회의실에서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동두천시의회)

### 동두천시의회 의정 역량강화 교육

#### 제2차 정례회 대비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23~24일 2일간 의원회의실에서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가오는 2023년 제2차 정례회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에 대비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해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최민수 지방자치의정연구소 소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을 초빙해 진행됐다.

동두천시의회는 첫째 날 교육으로

예산심사 기법 교육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했다. 둘째 날 교육에서는 예산분석 실무 교육이 진행돼 2024년 본예산안 심의를 위해 의회의 실무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은 "이번 교육은 2023년 제2차 정례회를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내년 한 해 시 살림을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깊이 있는 심의를 진행하고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성대 기자

## “수원시연화장 셔틀버스 도입 필요”

### 김소진 수원시의회 의원 “어르신·장애인 불편 커”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소진(국민의힘, 울전·서둔·구운·입북) 의원이 27일 2023년도 수원특례시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제379회 제2차 정례회)를 실시했다.

이날 김 의원은 수원시연화장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광고차로

지부터 연화장 입구까지 경사진 도보를 10여 분 넘게 걸어 올라와도 장례식장·승화원·자연장까지 다시 올라가야 한다. 따라서 교통약자인 어르신·장애인·임산부는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명절 기간 중 연화장 방문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실시한 셔틀버스 운행·지원을 이제는 상시 운영해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며 연화장 내 교통약자의 이동권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연화장 내 장례식장 빈소 도우미 협력업체 관리·감독에 대해 지적하며 “현재 2곳의 협력업체가 장례식장 빈소 도우미와 매니저를 운영 중인데 빈소 이용객을 대상으로 장례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협력업체를 회유하는 행위와 빈소 도우미 수 지정을 강요하는 민원이 많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적과 함께 “연화장 관련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협력업체의 문제점을 파악해 지도점

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고객서비스 부분에서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협력업체는 협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김 의원은 수원시연화장 셔틀버스 도입 및 장례식장 빈소 도우미 협력업체 제검토, 구운동·울전중학교 하수관로 정비, 석면 해체 안전관리, 도시가스 보급 확대 등 환경국의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했다.

김희열 기자

### 문화정책 관련 조례 상임위원회 통과

### 김유곤 인천시 의원 ‘작은도서관 개정안’

인천시의회 김유곤(국민의힘, 서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정책 관련 조

례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8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김유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안’ 등 2건이 ‘제291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문

턱을 넘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제287회 임시회’에서 ‘인천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구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 하는 등 도서관 관련 정책과 조례에 전문성과 관심을 기울여 왔다.

김 의원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시 정책에 필요한 사항들이 적

시에 마련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자치입법 권한이자, 중대한 의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집행기관의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지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를 거쳐 의결될 예정이다.

안중삼 기자

www.designdaejin.co.kr

도서출판 수목원가는길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늘 처음느낌처럼 진정한 책을 만났을 때  
그것은 사랑에 빠지는 것 같다.

# 感 처/음/느/낌

도서출판 수목원 가는길